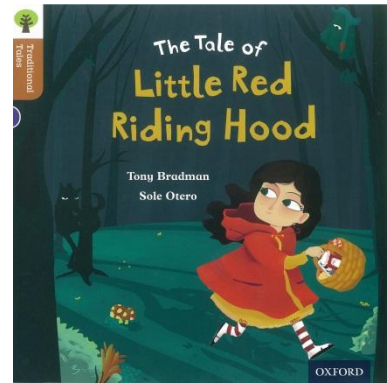




Stage 8



8 단계 '빨간 모자'

작가 토니 브래드맨

삽화가 솔 오테로

이야기에 대하여

트래디셔널 테일즈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 것과 또 낯선 사람과는 함부로 대화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반복해서 나누어 봅시다.

함께 읽기를 위한 가이드

함께 말하기

- 책 표지를 보고 함께 제목을 읽어보세요. “빨간 모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니?”하고 물어보세요.
- 앞의 네 페이지를 읽은 후, “빨간 모자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니?” 하고 물어보세요.
- 늑대가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아이가 알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늑대를 좋은 등장인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세요.

이야기 속 단어들

- 아이들이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dangerous, determined, familiar, murmured, politely, nestling 같은 단어들은 조금 어렵고 생소 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소리 내어 읽고,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단어들을 읽어준 뒤, 뜻을 설명해주어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아이는 한 챕터 이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 잘 알려진 이 이야기를 작가가 최신판으로 바꾸어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보세요. 예) mobile phone
- 아이가 책을 읽으며 많은 표현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표현에 덧붙여진 구두점에 유의하며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책을 읽어보세요.
- 소리나 몸짓을 나타내주는 서술적인 표현들을 알려주세요. 예) murmured, growled
- 중요한 문장은 의미에 유의하며, 반복해 읽어보세요.

아이들을 많이 칭찬하여 책을 계속 읽게 해주세요!

1장

p2)

“엄마, 제발 지금 나가게 해주세요.” 빨간 모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와 단 둘이 오두막 집에 살고 있는 빨간 모자는 현관문에 서서, “늦게 가고 싶지 않아요. 티타임까지 도착하겠다고 그래니 할머니와 약속했던 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P3)

빨간 모자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니 할머니 댁에 혼자 가보겠다고 여러 달 동안 엄마를 졸라대던 찰라 허락이 떨어졌었는데, 엄마가 또 다시 마음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P4)

“너를 가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숲 속에는 위험한 동물들이 많아서 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니?” 하고 엄마가 말했어요.

P5)

빨간 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했잖아요. 엄마, 조심할게요. 여기 핸드폰도 있잖아요.”

P6)

“글쎄...” 엄마는 중얼거렸어요. “좋아.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꼭 전화하렴.”

“그렇게요.” 빨간 모자는 강충강충 뛰어나갔어요. 엄마가 손을 흔들자 빨간 모자도 손을 흔들었어요.

P7)

그러나 숲 속으로 들어선 뒤,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자 빨간 모자는 “야호!” 하면서 주먹을 허공에다 휘둘렀죠.

2장

P8)

빨간 모자는 혼자서 나들이를 하게 되어 무척 즐거웠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보내는 바구니를 흔들며 걸으니 스스로 어른이 된 기분이었죠. 그때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빨간 모자는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안녕.” 어디선가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누구세요?”

P10)

빨간 모자가 돌아보자 뒤에 털 많은 커다란 짐승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짐승을 잘 알고 있었지만 빨간 모자는 알 길이 없었죠.

P11)

“난 빨간 모자예요.” 그녀는 예의 바르게 말하다가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낯선 사람과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털이 잔뜩 난 짐승이 으르렁거렸어요. “똑똑한 아이로군! 숲 속을 걷게 해주지. 그런데 어디 좋은 곳에 가는 거니?”

“그래니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숲 반대편에 살고 계시는데,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전 이만!” 하고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P13)

빨간 모자가 서둘러 가면서 어깨너머로 보니 놀랍게도 털 많은 짐승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친절해 보이긴 했지만 왠지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엄마가 인터넷에서 보여준 털이 잔뜩 난 나쁜 늑대가 떠올랐어요. 진짜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휴!

P14)

늑대는 왜 빨간 모자에게 덤벼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까이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무꾼은 트럭을 몰고 다니며 도끼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빨간 모자는 나무꾼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놓기로 했어요. “늑대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잖아.” 빨간 모자는 중얼거렸어요.

P15)

빨간 모자는 늑대 생각은 모두 잊어버리고 계속 걸어갔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좋고, 혼자 하는 나들이도 즐거워 할머니께 드릴 야생화도 꺾었어요.

3장

P16)

잠시 후에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문을 막 두드리려는 찰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지요. 할머니께서 열어 두고 나가셨나?

P17)

“제가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께 드리려고 맛있는 것을 좀 가져왔어요.” 빨간 모자가 소리쳤어요. “왔구나 빨간 모자야. 할머니는 여기 있어, 침실에.” 굵은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P18)

빨간 모자는 침실 문 앞에 서서 방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누군가가 할머니 잠옷과 머리모자를 쓰고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바로 나쁜 늑대였어요. “그렇게 서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렴.” 나쁜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P19)

빨간 모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를 어떻게 한 걸까? 늑대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어요. 빨간 모자가 할머니 사는 곳을 자세히 알려준 셈이니까요!

P20)

빨간 모자는 자기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럴 수가” 빨간 모자는 생각했어요. 그녀가 혼자

서 한 첫 나들이가 실패로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P21)

사람들은 빨간 모자를 “나쁜 늑대에게 잡혀 먹힌 아이”로 기억하겠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옛날에 빨간 모자가 할머니를 만나러 가다가 나쁜 늑대를 만나 불행해졌단다....(제목--나쁜 늑대에게 잡혀 먹힌 소녀)”

P22)

빨리 어떤 조치가 필요했어요. 마침 과자가 들어있는 바구니에 핸드폰이 보였어요. “음,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좀 있거든요”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P23)

나쁜 늑대는 놀라서 빨간 모자를 쳐다보았어요. 빨간 모자는 미소를 지으며 방에서 나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4장

P24)

나쁜 늑대는 침대에서 일어나 빨간 모자에게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음, 할머니, 왜 이렇게 귀가 커졌어요?” 빨간 모자는 시간을 끌려고 했어요. “정말? 네 말을 잘 듣기 위해 그렇단다.” 나쁜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P27)

“그렇군요. 음, 할머니 눈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아, 너를 잘 보려고 그렇지” 나쁜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P28)

늑대는 빨간 모자를 향해 계속 살금살금 기어오고 있었어요. 점점 더 가까이, 가까이...
“그리고.. 그리고.. 할머니는 왜 이빨이 그렇게 커졌어요?”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너를 잘 잡아먹기 위해서지!” 나쁜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침실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P29)

나무꾼이었어요. 그는 침대를 돌며 늑대를 쫓았어요. 나쁜 늑대는 겁에 질려 책책거리며 창문 밖으로 뛰어 달아나 버렸어요.

P30)

나무꾼과 빨간 모자는 옷장 속에 묶여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무사했어요. 약간 놀라기만 하셨죠. 빨간 모자는 앞으로 혼자 하는 나들이를 더 많이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엔 잘 해냈지요? 그렇지요?

p31)

엄마가 과연 빨간 모자의 이 말에 찬성할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다시 말하기를 위한 가이드

줄거리 이야기하기

- 빨간 모자는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되는지 물어보세요.
- sighed, murmured, roared 같은 단어들은 주인공들이 말하는 모습을 다르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이와 번갈아 가며 책에서 이런 다른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 20 쪽에서 23 쪽까지 다시 읽은 후, "빨간 모자는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을까? SOS 는 무슨 뜻이지?" 하고 물어보세요.

이야기 지도를 보며 줄거리 말하기

- 책을 다 읽고 난 뒤, 32 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지도를 이용하여 다시 함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각각의 그림은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보여줍니다.
- 아이가 스스로의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게 하세요. 아이와 함께 하거나, 또는 서로 번갈아 가며 줄거리를 이어나가도 좋습니다.
- 아이가 이야기의 한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을 이어주는 단어나 문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after a while, suddenly, to her surprise

뒷 표지

빨간 모자

빨간 모자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 왔답니다.

드디어 혼자서 할머니 댁에 가게 되는데요.